

애경그룹 張英信회장 자서전 『밀알』

“생생한 경영체험” 여성에人氣

행복하고 평범한 가정주부에서 졸지에 4남매를 홀로 떠맡은 미망인이 된 뒤 이제는 우리나라 제일의 여성기업인으로 인정받고 있는 애경그룹의 張英信회장. 그의 자전적 에세이와 생생한 경영체험을 모은 책 『밀알심는 마음으로』가 최근 여성 독자들에게 폭발적 인기를 모으고 있다.

주부서 企業人변신 「모험의 삶」고백

애경그룹 장영신회장
증언서
사회적 메시지

밀알심는
마음으로



張英信 氏



장영신회장

신념·용기로 극복한 숱한 고비에 「진솔한 감동」

美유학 결혼 경리공부등 일화도 담담하게 서술

지난달 출간된 뒤 한달반만에

6판 인쇄에 들어간 이 책에는 여

성이란 한계를 극복하고 거대

한 기업군을 이룩한 신화의 비결

이 담겨있다. 특히 12년동안 보

통주부로 살아온다 막내아들이

태어난지 3일만에 가정을 잃고

용기와 신념으로 고비를 넘겨온

한 어머니의 삶이 생생히 묘사되

어 있어 진솔한 감동을 전해준

다.

저자는 「그동안 본의아니게

「성공한 여성」으로 잘못 채색되

기도했음과 남다른 무엇이 있는

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도 자주

받아왔다」며 「책을 내자는 제의

를 받고 지난 23년간의 기업생활

이 끌어온 경험을 담담하게 밝히

보고 싶었다」고 밝히고 있다.

책속에는 張회장이 경영에

여하기까지 우여곡절과 이후 두

차례의 성공과 실패와 합작사와의

결별등 경영자로서 겪은 뒷얘기,

미국유학 시절의 일화와 남편과의

결혼과정, 신배경에서 다른

여성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

기들이 실려 있다.

우선 경영에 얽힌 에피소드 한

가지. 그는 71년 7월 남편이 타

계한지 1추기를 맞아 소산을 마

치고 회사경영에 참여하기로 결

심하는데 이에 대한 준비단계로

우선 6개월동안 아무도 모르게

경리학원에 나가 부기 경리를 배

우는데 치밀한 준비를 했다.

그러나 막상 회사경영에 나서

겠다고 발표하자 주위사람들은

「안타깝게도 젊은이 만한다」며

결사적으로 반대했다. 일부 인원

들은 같이 일해달라는 부탁과 최

소한의 수준까지 가르쳐 달라

는 뜻을 무시하고 회사를 떠났지

만 그는 끝까지 결심을 굽히지 않

았다. 아이들을 잘 키우겠다는

강한 모성, 남편의 유언을 그날

버려둘수 없다는 아내로서의 의

리, 애경은행원들에 대한 책임감

이 「무모한 모험」의 동기가 되고

회고했다.

또 초창기 이사회에서 오가는

이야기나 결재서류도 모든 말인

지 불과 보따리를 싸들고 집에

들어가 혼자 공부하는 날들이 1

년동안 계속됐다. 차츰 경영의

감이 잡히자 그는 단순한 비누

제조업보다 화학분야의 잠재성을

내다보고 이 분야에 주력, 경영

자로서의 자질을 보여준다.

부하직원과 외국출장때 부부

사이로 오해받던 이야기를 비롯,

잔잔한 일화들이 웃음을 전해주

는 이 책에는 평범한 여자로 돌

아가 친구들과 잡담을 나누거나

할머니로서 손녀를 사랑해주는

기쁨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

다.

(高美錫)